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부득이 돈키호테를 다시 읽는다

테스(1547~1616)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욕망의 본질과 구조를 가장 잘 드러낸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돈키호테는 자신의 욕망과 존재를 완전하게 일치시키는 인물이다. 그에게 욕망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이고 같은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달고가 어떤 계기에서 돈키호테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달고는 당시 크게 유행하던 기사소설을 읽고 '분별력을 완전히' 잃고 스스로 자신이 동경하던 기사가 되기로 작정한다. 이 지점에서 르네 지라르(1923~2015)는 이달고가 돈키호테라는 기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왜 '중개된 욕망'인가를 말한다.

몇몇 기사가 되어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돈키호테의 결단은 다른 대상에 대한 동경에서 나온 모사되고 굴절된 욕망이다. 자신의 내면과 자생적 힘에 의해서 생긴 욕망이 아니다. 결정 투성이의 기사들이 내내는 것을 두고 보는 것은 비겁한 일기기에 자신이 '권력의 남용을 막으며' 올바른 세상을 재건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부패와 부당함이 넘치는 현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송고하게 빛나는 정의감으로 자신의 결심을 무장한다. 결단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욕망이 어떻게 아름다운 이상(理想)이 되는가를 보여 주는 지점이다.

모방된 욕망에는 욕망하는 이유와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모방으로 얻는 결과가 중요할 뿐이다.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며 욕망하지 않으면, 아무도 같은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 이 간접화된 욕망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조직화되며, 여기에 파괴적 독이 있다. 이를 위해서 모방된 욕망을 품은 사람은 자신에게 순종할 사람과 가상의 적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자신의 욕망이 정당해지기 때문이다. 원래는 농부였으나 기사에 대한 흠모로 돈키호테와 동행하는 산초가 순종자이다.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풍자를 공격하는 장면에서 죄 없는 풍자는 사실 돈키호테의 망상이 만들어낸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을 읽으면 처음에는 유쾌하게 웃다가 차츰 혀를 차게 된다. 돈키호테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올라오는 순간에는 한참 심란하다.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뿐 복제된 욕망, 기성품의 욕망들이 전시된 시장 판에 바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돈키호테와 산초를 향한 허탈한 웃음과 답답함이, 돈키호테에게나 산초의 모습을 한 우리 스스로에게 보낸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현실 속 돈키호테들의 유혹이 거세지는 시절이다. 소설의 돈키호테는 현실의 왜곡된 욕망을 비취 주는 거울이지만 세상의 돈키호테들이 가진 목표는 다르다. 이들은 복제된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반복과 부정을 도 구화하기 때문이다. 돈키호테처럼 새로운 이름표를 내건 낱은 것들이 사방에서 펠럭인다.

하지만 우리 안의 진짜 욕망을 식별하는 일은 의외로 그리 어렵지 않다. 내 욕망을 먼저 만나자. 그리고 묻자. 스스로 가져 기사라도 될 수 없다고 해서 가져야 할 줄 아는 산초가 될 것인가를. 그리고 허풍선이 가져 기사 어디에 왜 필요한가를.

社說

‘등교 수업’ 일상 회복의 걸림돌 되지 않도록

전남 지역 전체 초중고교가 오늘부터 전면 등교 수업에 들어간다. 코로나19로 지난해 3월 휴교에 들어가 원격 수업과 부분 등교를 반복해 온 지 15개월 만에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엿그제 브리핑을 열고 “전남 지역 822개 모든 초중고교(학생 20만 3000명)에 대해 7일부터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학교들은 지난주까지 전체의 88%(725개)가 등교 수업을 한 가운데 오늘부터는 나머지 97개 학교도 전면 등교 수업에 들어가게 된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는 전국 최저 수준의 코로나 확진자 비율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비율 0.064%, 지난 3월 이후 전체 학생·교직원(24만 명) 대비 확진자 비율도 0.02%(61명)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더군다나 백신 1차 접종률은 20%를 넘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따라서 정

상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면서도 상황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를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생들은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1년 이상 중단되면서 학습 결손은 물론 사형선 배양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기초학력 미달 격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등교 수업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전면 등교에 맞춰 방역을 철저히 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 면역 형성에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함으로써 전면 등교 수업이 일상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 재판 열리기까지 1년 가까이나 걸려서야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재판 일정이 너무 더디다. 일부 사건은 첫 재판이 열리는데 1년 가까이나 걸리는 실정이다. 물론 지역 정·관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의 경우 쟁점이 복잡하고 법리 논쟁까지 치열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재판 일정이 늘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서구청장 항소심의 경우 1심 선고일인 지난해 8월 12일 이후 9개월 만인 5월 11일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통상 항소심은 항소장을 접수한 이후 3개월이던 잡히는 일반적 재판에 비해 무려 세 배 이상 늘어진 셈이다. 서 구청장은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일장대라면 모든 임기를 다 채워도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과 관련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중제 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무원 4명의 재판은 지난 2019년 11월 기소된 이래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도 지난해 10월 처음 법정에서 선 뒤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태껏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늘어지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광주지법의 경우 형사 합의부 1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올 들어 4월(179.5일), 3월(184.6일), 2월(187.0일), 1월(144.2일)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재판이 늘어지면서 임기를 다 채우고 만다면 뒤늦게 혐의가 입증된다 해도 처벌의 효과가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요 사건의 경우 재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고사성어 ‘금냥묘계(鏞鏘妙筥)’는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유래했다. 비단 주머니 속에 담긴 기묘한 계략이라는 뜻이다. 오나라 장수 주유는 야심을 가진 유비와 책략가인 제갈공명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민다. 유비를 오나라 왕손권의 여동생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속여 오나라로 유인하는 것이다.

주유의 속셈을 간파한 제갈공명은 유비의 신변 보호를 조자룡에게 맡기며 세 가지 계책을 담은 ‘비단 주머니’를 건넨다. 거기에는 유비가 손권 여동생에게 장가든다는 소문내기, 범상하고 있는 유비 일개유기, 위기의 순간에 부인 핑계 대기라는 계책이 담겨 있었다. 조자룡은 유비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계책을 꺼내 위기를 모면하게 해 준다.

최근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비단 주머니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다. 예비 경선에서 이 후보가 1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나온 금냥묘계 발언은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 젊은 정치인의 돌풍이 세대교체 열망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되지만 한편으로 이 같은 발언은 ‘공직’의 느낌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과 관련해 “3개의 비단 주머니를 드리겠다”고 말한 대목은 노회찬 정치인들의 언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윤 전 총장 부인 과장도 공격을 맞아 별 방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내를 버리란 말이나’ 발언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불현듯 산타 할아버지의 커다란 선물 주머니와 우리네 할머니 허리춤에 달린 작은 주머니가 생각난다. 커다란 주머니에서 선물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 주던 산타의 마을이나 허리춤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지폐를 꺼내 손주들에게 주던 할머니의 손길은

‘사랑’ 그 자체였다. 박근혜에 의해 발탁된 이 후보는 20대부터 10년간 정치를 해왔다. 화려한 스펙과 학벌은 어느 젊은이들과는 다른 ‘금수저’ 이미지를 풍긴다. ‘금냥묘계’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한 연사로는 부적절할 듯하다. 민생과 공정을 담은 소박하지만 따스한 주머니 이야기가 그리운 시대다. 희망의 씨앗이 담긴, 그리고 행복의 바이러스가 가득 담긴 주머니 말이다. /박성선 문화부 부장 skypark@

기고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교수

학교 예술강사 처우 개선 시급하다

한 강사를 신청하면 교육청이 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초중등학교에 파견돼 정규 교과과정상 기본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이나 재량, 특별 활동 시간에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한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의 진로 활동을 담당하기도 한다. 현재 전국 단위의 학교 예술강사는 대략 5000여 명, 우리 지역은 260여 명(노조원은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는 사람을 통한 교육이 중요하고 예체능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이외에 학교 예술강사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이들이 안전한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련 법률의 재정비이다. 학교 예술강사들의 지위와 지원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문화예술 지원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강사들의 안정적 지위 확보와 정당한 활동을 위해서는 조속한 관계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청 관련 예산의 확충이다.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수한 강사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강사 채용과 시수 확보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도 직결된다. 현재 광주의 연간 예산은 35억여 원으로, 50여 원을 배정한 전남과 전북에도 미치지 못한다. 학생 1인당 예산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강사당 연간 최대 290시수(평균 272시간)를 담당하고 시급 4만여 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게다가 3년 한시적 제

용 계약과 의료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3대 보험의 혜택에 국한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기초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고되고 한다. 따라서 이들의 열악한 처우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셋째, 단위 학교에서 외부자로 취급되는 문제이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강사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강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한다. 강사들을 위한 업무·휴게 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심한 경우는 계단에서 앉아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예체능 담당 선생님 업무를 대신시키거나, 규정 이외의 문화예술 발표회나 전시회의 업무까지 맡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이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서 예술강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

결국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창달하는 방법은 교육에 달려 있고, 교육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점을 감안하면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학교 예술강사와 관련된 법률을 재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호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렇다. 시민들의 관심과 생각이 교육을 바꾼다. 만델라 대통령의 말처럼 교육은 사회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문화예술도 예외가 아니다.

기고

‘악화가 양화 구축하는 사회’ 배격해야

대된 경우도 있어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톡방이 소수의 적극적인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배되거나 지나치게 강한 주장 속에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다수는 참여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단톡방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거의가 정치적으로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 및 인물에 대한 홍보성 내용이거나 다른 당 후보들에 대한 악선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간혹 자연, 건강, 문화예술에 대한 내용이나 건전한 창작물도 있지만 소수에 그치고 있다. 자신의 주체적 소신이나 학문적 바탕에서 나오는 창작이나 주장이 아니라 이미 홍보물화되었거나 일반화된 ‘퍼 온 내용’들이 재탕 삼탕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나 토론을 위해 만들어진 소통의 장이므로 어떤 내용을 올리든지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간의 사적 대화의 장이 아니면 실명이건 익명이건 공론의 장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비록 형식은 글이나 그림을 통하지만, 서로가 대면해서 대화하는 것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방에 들어와 있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최소한의 체면과 예의를 갖추는 상식이 요구되며, 이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신들의 인격과 양심의 문제라 할 것이다.

자기 주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수많은 보도되거나 일반화된 내용이나 사진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 올리는 행위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런 일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과 지지자들의 활동이 격렬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좋은 인물을 선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지지자들의 활동을 반대하거나 제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나 공리적인 언행보다는 오직 자신의 이념이나 확증적 편견에 바탕을 두고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거나, 특정 정당·정치인·지역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과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식의 음해와 정보 유포를 행위가 거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처를 주는 범죄 행위이고, 민주 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딸 없는 다수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적 교육 수준을 자랑하며, 최단 기간에 경제의 성장과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최첨단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우수한 국민의 집합체이다. 일부 극단적인 맹종주의자들의 현혹과 떼거리 댓글, 막말 주장에 영향을 받는 국민이 결코 아니다. 자신의 선택적 지각 오류를 숨기고, 과격한 언행이나 반복적인 게시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국민의 냉소 속에 반감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며 근거가 분명한 정보나 주장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공감을 사도록 노력하며, 타인의 글에 격려하는 선한 댓글을 올리는 사회적 개혁 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하
시인
전 광주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16세기 중반 영국의 금융가인 그레이엄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을 했다. 이는 경제적인 용어이지만 사회에서 자질이 인격이 높은 사람은 나서지 않고 오히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저돌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조직이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SNS를 활용하여 의견과 주장을 소통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익숙한 것이 단체 카톡방이다. 어떤 것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초대되거나 적어도 수십 명의 회원들이 초대되거나 참여하고 있다. 친밀한 사람끼리 단순한 친목이나 안부를 묻는 정도의 단순하고 가벼운 카톡방이 있는가 하면 개설 초대자의 의도에 따라 광범위한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톡방도 많다.

처음에 초대된 사람들의 이름과 면면을 보면 각계의 사회지도층 인사나 지명도가 높은 분들도 거명되고 있는데 나중에 지켜보면 대개 그런 분들은 바로 나가버리거나 탈퇴하지 않더라도 거의 참여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초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